마태복음

■ 제자도와 예수님의 돌보심 (231004)

1. 마태복음의 문맥

1.1 예수님께서 베푸신 5개의 가르침
- 1.1.1. 마 5-7장: 산상수훈
- 1.1.2. 마 10장: 제자도와 선교
- 1.1.3. 마 13장: 천국 비유
- 1.1.4. 마 18장: 연약한 자를 돌봄
- 1.1.5. 마 24-25장: 마지막 날을 기다림

1.2. 마 14장은 천국의 비유 이후에 제공된 기사
- 1.2.1. 천국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
- 1.2.2.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

2. 천국 백성의 어려움 ①: ( )—침례 요한의 순교(마 14:1-12)

2.1.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(마 13:53-58)
- 2.1.1. 너무 잘 알기 때문에?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!
- 2.1.2. 메신저에 대한 선입견, 편견, 혹은 부정적인 생각(마 13:55)
  - A. "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?"
  - B. 그의 가족을 잘 알고 있음: 마리아, 야고보, 요셉, 시몬, 유다
  - C. 이중 ( )와 ( )는 각각 신약성경의 저자가 된다!
- 2.1.3. ( )에 대한 거절 → 메시지 곧 비유를 통해 계시된 천국을 거절

2.2. 침례 요한의 순교(마 14:1-12)
- 2.2.1.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부활한 침례 요한으로 의심(마 14:2)
- 2.2.2. 과거 침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회상
  - A. 헤롯 아티파스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
  - B. 침례 요한은 이를 불법한 일로 공개적으로 책망함(레 18:16)
  - C.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만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둠
  - D. 그의 생일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침례 요한을 참수하게 됨

2.3. 이 두 사건은 천국 비유를 듣고 깨달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주었을까?

3. 천국 백성의 어려움 ②: ( )—오병이어의 기적

3.1. 이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떠나 빈 들로 가심
- 3.1.1.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, 병자들을 고쳐주심
- 3.1.2. 저녁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수 많은 무리들이 굶주림
- 3.1.3. 이들은 밥 먹는 것도 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것인가?

3.2. ( )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심
- 3.2.1. 시간은 저녁, 장소는 빈 들, 무리는 대략 1만명 이상!

3.2.2. 제자들이 제시한 현실적인 대안은 "각자도생!"(마 14:15)

3.2.3. 예수님의 방법은 오병이어의 기적

A. 남자만 5,000명이 먹음 → 중요한 것은 빈들에 있던 모든 사람!

B. 이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심: "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!"(마 14:16)

3.3.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, 그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 분!

3.3.1. 전체 문맥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가 처한 두려움의 상황을 아심

3.3.2.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

3.3.3.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이 일할 수 있는 ( )를 주심

3.3.4. Why? 그 기적의 현장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!

4. 천국 백성의 어려움 ③: (고난)—풍랑을 잠잠케 하심(마 14:22-36)

4.1. 해가 질 무렵 제자들을 배 태워 떠나보내심

4.1.1. 예수님께서는 ( )를 위해 홀로 있음의 시간을 가지심(마 14:23)

4.1.2.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( ) 회복

4.1.3. 하나님과 친밀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?

4.1.4. 기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과 수시로 상의하고, 대화하라!

4.2. 바다의 한 복판에서 만난 고난

4.2.1. 공간적 배경: 육지에서 수 리를 떠난 지점(마 14:24) → 예수님이 ( ) 보이지 않음

4.2.2. 시간적 배경: 밤 사경(마 14:25) → 예수님이 ( ) 보이지 않음

A. 로마 군대는 밤, 곧 일몰(6시)부터 일출(6시)까지를 넷으로 나눔

B. 각각 세 시간씩 할당 → 사경은 새벽 3~6시 사이

C. 많게는 9시간이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!

4.2.3.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난 풍랑을 ( )으로 명명 → 인생의 풍랑

4.3.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심

4.3.1.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!

4.3.2. 배가 뒤집혀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다가오심

4.3.3.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: "( )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!"(마 14:27)

4.4.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

4.4.1. 예수님을 바라보며 "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!"(마 14:28)

4.4.2.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되었을 때, 두려워함(마 14:30)

4.4.3. 예수님의 애정어린 권면과 구원: "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?"(마 14:31)

4.4.4. 이러한 기사가 포함된 이유? → 우리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심

5. 제자들의 신앙고백: "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!"

5.1.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

5.1.1.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평안을 주심 → 환경을 초월한 평안

5.1.2. 베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,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심

5.1.3.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후에 함께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심(마 13:32)

5.2. 이 일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함

5.2.1. 주께 절하며 고백함: "진실로 하나님의 ( )이로소이다!"

5.2.2. 해당 문맥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!

A. 누가 바다 위를 걸으며, 누가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겠는가?

B. 지음 받은 것이 지으신 분의 명령에 순종함

C.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,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분!

5.3.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볼 때

5.3.1. 예수님은 고난과 배척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(히 4:15)

5.3.2.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,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을 주목해 보시고

5.3.3.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, 돕고, 구원해 주시는 분!

5.3.4. 이 과정을 통해 성도는 믿음의 ( )을 이루고, 참된 ( )에 도달하게 됨(벧전 4:12-13)